

“해외 의존 부품·장비 국산화 시급”

여야 국회의원들, 정책포럼 개최

“우주산업에 대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민관협력 통한 탄소소재 공급망 확보 필요”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탄소소재 공급망 확보’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21일 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 주축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탄소소재가 이끈다!’를 주제로 정부의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탄소소재에 대한 공급망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럼을 주최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안호영 의원, 신영대 의원, 국민의힘 정은찬 의원과 구자근 의원,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경상북도 이달희 부지사, 전라북도 김중훈 정무부지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6명의 여야 의원들은 개회사를 통해 “우주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고성능 탄소소재 기술 개발 등에서 민관협력력을 통한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탄소소재 산업을 더욱 전략적으로 육성해나가기 위한 R&D지원, 관련 인프라 확보, 인력 양성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탄소소재 산업 발전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기술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과 함께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졌다”며 “세계 우주 선진국은 탄소소재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탄소소재·부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탄소소재 공급망 확보'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21일 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 주축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를 통해 “탄소소재 그 자체가 고성능 산업용 뿐 아니라 수소차, 항공기 등 전후방 산업의 고강도 및 경량화를 구현하는 핵심소재”라며 “뉴스페이스 시대에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고품질 탄소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 인프라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앞으로 PAV, 무인기 등 첨단 신성장 산업에서 탄소섬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재개발·부품제조·제품화-

선외검증 등에 이르는 전주기적 민관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 탄소소재·부품의 트랙레코드를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대 윤근진 교수는 “우주·항공·방위 산업의 자생적 국내시장 조성이 중요한 만큼 탄소소재 중심의 원소재-중간재-부품-완제품의 균형적 발전과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부의 조문수 대표도 “국산 탄

소섬유 및 프리프레그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과 함께 해외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과 장비의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흥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누리호의 37만여개 부품을 국내 300여개 기업과 기관이 자체 개발했지만, 핵심소재인 탄소소재 및 복합재는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진정한 국산화를 이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탄소소재 단계부터 국산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성 기자

지역 스마트농업 경쟁력 향상

농진청, 11월까지 스마트농업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역별 스마트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능형 온실(스마트팜)에서 수집된 자료(데이터)의 품질 고도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농업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스마트농업 현장 기술지원단은 농촌진흥청, 도(道)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소속 분야별 전문가와 대학교수, 농협, 민간 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 지원 대상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스마트농업 실증연구(테스트베드) 교육장,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설 등 지능형 온실 운영 농가 등 농업 관련 사업장 등 전국 40개소이며, 대상지역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할 계획

이다. 대상지역 주요 요청사항은 △지능형 온실 시스템·장비 운영 방법 △데이터 수집·정밀측정·가공 △고품질 농작물 생산 △농산물 관측 등이다. 농촌진흥청은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농업 생산성과 농작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오전 11시(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한-베 중소기업 교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베 중소기업 교류지원센터 개소식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1일 오전 11시(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한-베 중소기업 교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응우옌 티 타인 베한의원전선협회 회장 겸 응우옌 탄 공 부회장, 판 탄 공 베트남상공회의소 회장 정우진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총영사 등 베트남 국회 및 정부, 유관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 베트남 사무소 내에 위치한 한-베 중소기업 교류지원센터는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로 다양한 사업 분야를 연계해 신규 사업 수요를 발굴하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3년 베트남 상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2016년 베트남 사무소 설치, 2019년 글로벌 정책포럼인 백두포럼과 투자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양국 기업활동의

소통과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베한의원전선협회 응우옌 티 타인 의원은 “센터의 설치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판 탄 공 베트남상공회의소 회장은 “한-베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중기중앙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로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한국의 888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베트남 중소기업 및 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해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베트남 상의를 방문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과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전략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윤성 기자

남원에서 “하루 두 끼 밥심”

농협 남원시지부

쌀 소비촉진운동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는 21일 남원시청 1층 로비에서, 최경식 남원시장, 김점순 고흥주부모임 남원연합회장, 홍옥자 농가주부모임 남원연합회장, 양병석 새농민회 남원시지회장 등과 쌀 재고 과잉과 식습관 변화로 인한 쌀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원 쌀(1kg 소포)을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하루 두끼는 밥심으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남원 쌀 소비촉진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권오정 지부장은 “쌀 값 하락에 울 수확기를 더 걱정하는 농업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는 21일 남원시청 1층 로비에서, 최경식 남원시장, 김점순 고흥주부모임 남원연합회장, 홍옥자 농가주부모임 남원연합회장, 양병석 새농민회 남원시지회장 등과 쌀 재고 과잉과 식습관 변화로 인한 쌀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했다.

고 있다”며 “남원농업과 농가를 살리기 위한 쌀 소비 촉진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농협 임직원들은 한(1)달에

20kg 쌀 두(2)포씩, 총(3)개월간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밥농협 쌀 소비 촉진 1·2·3운동을 전개하며 쌀 소비 촉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미래 신기술 인력양성 훈련과정 개발 논의

전북인자위, 스کیل업 간담회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를 비롯, 전북지역 공동훈련센터(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캠틱 종합기술원) 등의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차 Skill-Up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력양성 운영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의 사례발표를 통해 2022년 신설된 농업바이오시스템과, 스마트전자자동차과를 통해 전북지역의 신기술 융복합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양질의 훈련과정을 개발할 것을 논의했다.

전북인자위는 올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채용 연계형 구직자 양성훈련 4개 과정 80명, 재직자 향상훈련 7개 과정 2,291명 등 총 81개 과정 2,371을 목표로 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 현재 1,604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전북인자위는 올해 한 해 총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Skill-Up 간담회. (사진=전주상공회의소 제공)

필요로 하는 인력 및 훈련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내내 1,000여명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인력 및 훈련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혁신 선도 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전북지역혁신프로젝트, 현장기반형 훈련을 공급하는 일학습병행,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 위기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지원·전직을 지원하는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인자위는 이를 통해 올 한 해 총

4,000여 명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인자위 운영심사위원장은 “지금 미래 신기술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의 산업계와 유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마련할 작기”라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신호탄으로 전라북도 일자리 시장과 경제전반이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농수산식품 온라인

콘텐츠 경쟁력 강화

aT, K-웰니스 인플루언서

콘텐츠 27~28일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우리 농수산식품의 온라인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7일, 28일 양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회장 김미자)와 협업체 ‘제1회 K-웰니스 인플루언서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협업체는 지난 1월 공사와 협회의 업무협약 이후 첫 공동행사로, 전국 지자체의 우수 농수산식품과 우수 관광지를 홍보하는 2022년 K-웰니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의 쇼인쇼 행사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유튜브, 쇼츠, SNS 운영자 등 영상제작 분야 인플루언서들이며, 지역별 먹거리 등 주제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콘테스트를 진행해 먹거리 및 관광 분야 전문 인플루언서 양성을 물론 우리 농수산식품의 온라인 기반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회는 사전영상 부문과 현장영상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영상 주제는 2022년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 소개를 포함해 △K-웰니스 도시 소개 △지자체 먹거리·관광 △페어에 참가한 기관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사전영상 부문은 유튜브, 쇼츠, SNS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까지 접수한 영상을 심사해 수상자 명단을 결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장관상 시상상 협회장상을 각각 수여하고 공사의 다양한 사업 매칭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영상 부문은 유튜브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박람회장을 방문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 선물세트 제공과 함께 조회수에 따른 상금을 지급한다. 공사와 협회는 인플루언서의 활발한 참여 유도를 통해 우리 먹거리와 관광 등 K-웰니스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운영배 농수산식품거래소 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농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인플루언서들의 관심과 콘텐츠 제작이 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웰니스산업협회는 물론 참신한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체 우리 농수산식품의 온라인 기반 홍보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현대차·기아, 26~28일

여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여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여름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는 현대차·기아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 서비스 거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대차·기아는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행에 앞서 고객 차량의 주요 부품을 점검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무상 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전국 서비스 거점 방문 전 현대차 마이현대(myHyundai), △기아 마이기아(MyGIA), △제네시스 바이제네시스(MYGENESIS) 등 각 사 통합 고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무상 점검 쿠폰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무상 점검 쿠폰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다운로드 가능하며 총 45,000장(현대차 3만장 기아 1만장 제네시스 5천장)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이후 현대차 고객은 1,317개 블루렌즈(지역 하이테크센터 미실시), 기아 고객은 전국 18개 서비스센터 및 778개 오토퀵을 방문해 쿠폰 제시 후 검사 받으면 된다.

점검 항목은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엔진 구동 상태 △냉각수 및 오일 누유 여부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각종 등화 장치 점등 상태 등이며 전기차는 EV 냉각수 및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점검을 추가로 제공한다. /원주=이종욱 기자